

영남좌도 통신사 교방춤에 나타난 문화예술적 특징

Cultural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of a Gyobang Dance Displayed in Tonshinsa from Yeongnam Jwa-do Province

양지선, 강인숙
경상대학교

Ji-Seon Yang(venus7048@hanmail.net), In-sook Kang(edance97@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敎坊)의 기녀들이 춘 교방춤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후 기록한 28권의 기행문을 엮은 『해행총재(海行摠載)』와 문집류를 분석하였다. 통신사가 왕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가는 길은 영남의 좌도(左道)를 이용했고,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영남의 우도(右道)를 이용했다. 나라에서는 통신사들의 항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무사안일을 기원하기 위해 성대한 연향을 베풀었다. 연향은 통신사들이 한양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하행 길인 영남좌도에 집중되었다. 통신사들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통신사 연향(宴享)은 영남좌도의 안동·영천·경주·밀양·부산 등에서 나타났다.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은 검무·황창무·처용·천도·무동·입춤·중춤이다. 통신사행을 통해 영남좌도는 ‘조선통신사 길’이 형성되었고 통신사 연향을 통해 교방춤의 예술성이 집대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영남좌도는 영남우도에 비해 전승되고 있는 교방춤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남좌도의 교방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조선통신사 길을 통해 형성된 영남좌도의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중심어 : | 영남좌도 | 통신사 연향 | 교방춤 | 문화예술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Gyobang Dance performed by gisaeng of Gyobang in the banquet of Tonshinsa in Yeongnam Jwa-do Province. For this study, 『Hae-haeng-chong-che』, a collection of 28 travel essays written by Joseon Tonshinsa after visiting Japan, and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were analyzed. Joseon Tonshinsa used Yeongnam Jwa-do Province as a route to Japan in obedience to a royal command, and Yeongnam U-do Province as a way back to Hanyang after completing their missions. The country gave a huge banquet to relieve Tonshinsa's anxiety about the voyage and to pray for a safe trip. The banquets were concentrated in Yeongnam Jwa-do Province, the way down to Busan departing from Hanyang. Looking into Tonshinsa's records, it can be seen that Tonshinsa banquets took place in Andong, Yeongcheon, Gyeongju, Milyang, and Busan. Gyobang Dance performed at Tonshinsa banquets includes Geommu, Hwangchangmu, Cheoyongmu, Cheondo, Mudong, Ipchum, and Jungchum. Through Tonshinsa envoy, 'Jeseon Tonshinsa-gil' was formed in Yeongnam Jwa-do Province, and through Tonshinsa banquets, the artistry of Gyobang Dance was compiled. Nevertheless, present Yeongnam Jwa-do Province has remarkably less Gyobang Dance passed down in comparison to Yeongnam U-do Province.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look into Gyobang Dance of Yeongnam Jwa-do Prov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cultural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of Gyobang Dance performed at Tonshinsa banquets in Yeongnam Jwa-do Province formed through Joseon Tonshinsa-gil.

■ keyword : | Yeongnam Jwa-do Province | Tonshinsa Banquet | Gyobang Dance | Culture and Art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영남좌도의 통신사 여정에서 교방의 기녀들이 춘 교방춤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살펴 본 것이다. 통신사들이 일본을 오가는 국내 여정은 영남지역을 통과했다. 일본으로 가는 하행길은 영남의 좌도(左道)를 이용했고, 일본의 일정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상행길은 영남의 우도(右道)를 이용했다. 통신사들의 하행 노선은 조선시대 영남지역을 통과하는 봉수(烽燧)로에 속했다. 봉수로 길은 신속한 통신전달 길임과 동시에 통신사들의 숙박과 연향을 담당하는 고을이 속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통신사 길’이 형성되었다. 통신사들의 하행 노정에 속한 주요 지역에서는 연향을 베풀었는데, 통신사들의 힘든 노정의 여독을 풀어주고 험난한 항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조선시대 교방의 역할은 지방 관아(官衙)의 행사에 필요한 연향의 가무악(歌舞樂)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영남의 좌도(左道)는 우도(右道)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교방이 설치되었는데, 통신사들의 연행로와도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조선통신사행의 중단과 근대 이후 새로운 길의 형성과 함께 좌도 교방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통신사 연향에서 영남 교방의 기녀들은 의례의 일부인 교방춤을 담당했다. 영남좌도의 통신사 연향은 나라에서 열어주는 사연(賜宴)인 경우가 많았다. 통신사 연향을 위해 영남 일대의 재주와 기량이 우수한 기녀들이 소집되어 교방춤을 추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통신사 연향의 횟수는 감소되었고, 통신사행이 중단됨과 동시에 영남좌도 교방은 그 기능이 감소되었다. 그 결과 현재 영남좌도에서 계승되고 있는 교방춤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남좌도의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0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일본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통신사 길의 일부구간이 ‘통신사길’이라는 도로 명칭으로 명명될 예정이다.¹ 기록유산과 자연유산은 문화를 통한 이야기가

있어야 빛날 수 있다. 영남좌도의 ‘통신사 길’은 그 길을 따라 나타난 연향이 있었기에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연구자는 통신사 길을 통해 나타난 연향과 그 속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교방춤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일본을 다녀온 후 여정을 기록한 28여종의 글이 수록된 『해행총제(海行摠載)』와 문집류를 분석하였다. 문헌분석 결과 국내의 여정을 주로 다룬 것, 일본 내의 여정을 다룬 것, 포로로 잡혀갔거나 표류했던 내용의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고려시대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은 정몽주의 『정포은봉사지작』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조선시대의 기록물이다.

일본에 표류했던 내용은 이상득(李志恒)의 『표주록』이 있다. 『해상록』은 정유재란 때 포로로 붙잡혀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일기이다. 『간양록』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잡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다.

일본에서의 내용이 주로 소개된 글은 총 10여 종류가 있다. 1471년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와 1596년 황신(黃愼)의 『일본왕환일기』는 일본의 지리·관제·풍속 등을 소개한 글이다. 1617년 통신사행의 기록물은 2가지이다. 오윤겸(吳允謙)의 『동사상일록』과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이다. 1636년 『병자본일기』와 황호의 『동사록』, 조경의 『동사록』도 일본에서의 내용이 서술되었다. 『일동기유』, 『사화기략』, 『동사만록』은 모두 1876년 이후에 일본의 선진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국내의 연향과 일정이 주로 수록된 글은 총 16종류이다. 1607년 경섭(慶暹)의 『해사록』, 1636년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 1643년 신유(申濡)의 『해사록』이 있다. 1624년 강홍중의 『동사록』, 1682년 홍우재(洪禹載)의 『동사록』, 1811년 유상필(柳相弼)의 『동사록』이 있다. 1763년 통신사행에 함께 다녀온 후 기록한 내용은 3종류이다. 조엄의 『해사일기』, 원중거의 『승사록』, 김인겸의 『일동장유가』가 있다. 1682년 김지남(金指南)의 『동사일록』, 1711년 임수간(任守幹)의 『동사일기』, 1719년 신유현의 『해유록』, 1420년 송희경(宋希璟)의 『일본행록』이 있다. 남용익(南龍翼)의 『부상일록』과 김세렴(金世濂)의 『사상록』, 이현영의 『일사집략』이 각각 국내의

1 2019년 준공예정인 부산~울산 7번 국도 우회도로 양산 구간 도로 명칭이 ‘(조선)통신사길’로 명명될 예정이다.

여정을 많이 수록했다. 이상의 자료는 조선과 일본을 오고 간 일정과 체험에 대한 기록 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나타난 연향 관련 자료만 발췌하였다. 연향에서도 교방의 기녀들이 춘 교방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II.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

통신사는 왕명을 받고 일본으로 파견한 조선의 공식 외교사절단이다. 통신사는 1429년부터 1811년까지 400여년간 20여 차례 파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1607년, 1624년, 1636년, 1643년, 1682년, 1711년, 1719년, 1763년 통신사행에서 연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연향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하행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상행길에는 연향이 없었다. 조선통신사의 하행 노정은 조령→문경→용궁→예천→안동→의성→의흥→신녕→영천→경주→울산→동래→부산으로 나타난다. 통신사 하행길은 영남좌도에 교방(敎坊)이 있던 청송·군위·대구·경주·밀양·동래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아래 그림은 통신사들이 영남좌도를 지났던 길과 형성된 교방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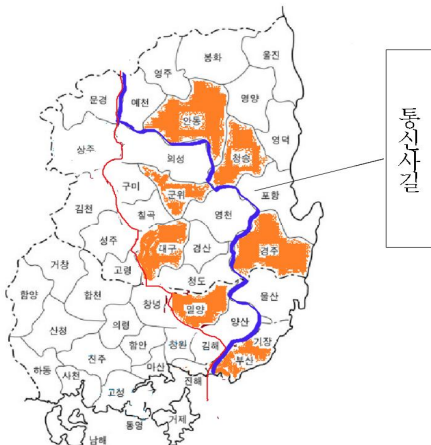


그림 1. 영남좌도 교방과 통신사길

영남의 관문인 조령을 통과하면 예천(醴泉)에서 연향이 있었다. 1624년 8월 20일 한양을 출발한 통신사 일행

은 9월 2일 예천(醴泉) 남면(南面)에 도착했다. 여러 친족과 동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소를 잡고 주연(酒宴)을 베풀었다[1]. 1682년 5월 15일에도 예천의 연향이 있었다. 이날 저녁의 야경 달빛은 낮과 같았고, 삼사가 객사 동헌(客舍東軒)에 모여 연향을 즐겼다. 구경하는 자들도 담을 친 듯이 많이 모였다[2].

안동은 예천을 지난 다음 연향이 있었던 곳이다. 안동에서는 영호루(映湖樓)와 망호루(望湖樓), 진남루(鎭南樓) 등이 연향장소로 이용되었다. 1624년 9월 3일과 4일에 안동부(安東府)에서 잔치가 있었다. 상사와 종사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렸다. 안동부사(府使) 이상급(李尙級), 영해(寧海)부사 윤민일(尹民逸)도 통신행차를 지대(支待)하기 위해 나왔다. 이날의 연향 비용은 풍기군수 송석경(宋錫慶)이 보조했다. 9월 5일에는 아침에 안동 수령이 영호(映湖)의 배 위에서 기녀와 악(樂)을 갖추고 진별연을 베풀었다. 잔이 오고 가도록 만취가 되는 것도 모르게 연향을 즐겼다[3]. 안동에서 1636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통신사 연향이 있었다. 26일은 동헌(東軒)에서 안동부사가 영해 부사, 풍기군수와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석양이 되어서 파하고 망호루에 올라 경치를 구경했다[4]. 안동 망호루에서 1682년 5월 16일 삼사(三使)가 주관한 가운데 관현악 연주와 기생의 유희(妓戲)가 있었다. 해가 진 뒤에는 영호루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10리 길에 달하는 횃불과 촛불의 행진으로 이어졌다[5]. 안동 진남루(鎭南樓)에서 1711년 5월 25일 기악(伎樂)이 연행되었고, 누각 아래에서는 마상제가 펼쳐졌다. 진남루 연향이 끝나자 강무당(講武堂)으로 옮겨 활쏘기를 구경했다. 이날은 해가 질 때까지 풍악과 주연이 있었다[6].

의성에서는 1711년 5월 26일 저녁 한차례 연향이 있었다. 이날 저녁 문소루(聞韶樓)에서 청송(靑松) 기생 두 명이 참석하여 춤을 추었다[6].

영천에는 연향을 할 수 있는 연향관(宴享官)이 있었고, 아외 조양각(朝陽閣)에서 연향이 자주 열렸다. 1607년 2월 2일 영천에서 관찰사가 베푸는 연향례(宴享禮)

2 지방으로 업무를 나가는 고관의 먹을 것과 쓸 물건을 지방관아에서 바라지 하는 일.

3 통신사행단의 정사(正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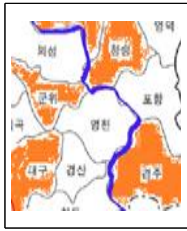


그림 2. 영천지역

가 있었다. 도사(都事)와 청송·영천·대구 세 고을 원이 들어와 참석하였다[7]. [그림 2]와 같이 영천 지역은 통신사 길에서 안동을 지나 경주로 이동하기 전 큰 고을이다. 영천에서 1624년 9월 9일 아침 한옥재(韓勗哉)라는 자가 통신사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 상사,

중사, 신녕(新寧) 현감이 영천 겸관(永川兼官)으로 참석했다. 여러 기녀들이 나열하고, 거문고와 피리도 연주되었다[8].

1636년 8월 30일 영천 조양각에서 통신사 연향이 시작되고, 무관 두 명은 성밖 냇가에서 화려한 마상재(馬上才)를 선보였다. 섰다가 누웠다가 거꾸로 섰다가 옆으로 붙었다가 하여 날새기가 형용할 수 없었는데, 구경꾼이 담을 두르듯이 많았다[9]. 1682년 5월 20일은 관찰사의 지시로 영남 아홉 개 군(郡)에서 전별연을 준비했다. 아홉 군의 풍물(風物)이 모두 영천으로 모였다. 삼사와 방백은 객사 동헌에 잔치를 열었고, 일부 인원은 일행의 사처[下處]에서 잔치상을 반도록 했다. 이날 조양각에서 마상재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도 풍악을 울리고 가무를 앞세웠다. 오순백(吳順白)·형시정(邢時挺)은 말 위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였다. 누각 앞 넓은 들판에는 구경꾼이 저자와 같았다[10]. 1711년 5월 29일에도 조양각에서 전별 잔치와 마상재가 있었다[11]. 1763년 8월 16일에도 전례에 따라 조양각 전별연이 있었다. 풍악을 울리고, 영남의 성대한 모임이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거의 만으로 헤아렸다[12].

영천을 지나 경주에 도착한 통신사행단은 며칠간 머물렀다. 경주의 통신사 노정 중에는 명승고적을 구경하는 것을 코스로 정례화 하고 있었다. 1624년과 1636년, 1643년, 1711년의 통신사행에서 봉황대(鳳凰臺)에 올라 구경을 한 후에 연향이 이루어졌다. 1624년 9월 10일 통신사행단은 봉황대에 올라 구경을 한 후에 주연(酒宴)을 베풀고 기악(伎樂)을 감상했다. 다음날인 11일에도 같은 연향이 계속되었다. 9월 12일에는 대청에서 편을 나누어 활쏘기 시합을 한 후 상벌을 시행했다. 활쏘기를 마친 저녁에 흥해 수령이 별도로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9월 13일 아침 경주를 출발하여 동정(東亭)에 당도하자 부윤과 흥해 군수가 기악(伎樂)을 울리며 전별연을 베풀었다. 이곳은 옛날 최고운(崔孤雲)이 살던 옛 터로, 관가에서 물수하여 손을 전별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한다[13]. 1711년 6월 1일 경주에서 군관들의 활쏘기와 전별연 잔치가 있었다[14]. 경주를 출발하여 동래에 도착하기 전의 울산에서는 큰 연향은 없었다.

동래부에 통신사 일행이 도착하면 동래부사가 성대한 의례로 맞이했다. 장막(帳幕)을 치고 군사의 위엄을 갖추고 통신사들을 맞이했다. 사신 이하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국서(國書)를 객사에 봉안하고 나면 의식이 시작되었다. 동래를 떠나 부산에 도착할 때도 동래에서와 같은 환영의식이 있었다.



그림 3. 부산지역

[그림 3]의 통신사 길에서 부산은 일본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여정지다. 따라서 앞으로의 항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연향이 제공되었다.

1607년 2월 8일 부산에 도착한 통신사 일행은 2월 29일까지 20일 정도 머물렀다. 2월 15일 부산 수사가 베푸는 성대한 연향례(宴享禮)가 있었다. 이날 상하 원역 및 격군(格軍)을 성대히 대접했는데 밤이 되어서야 과하였다. 2월 23일에는 통제사 이운룡이 연향을 베풀어 밤이 되어서야 과하였다. 2월 25일 통제사의 전선(戰船)에 모여 연회가 이루어졌다. 이어 중사관, 통제사, 경שמ 세 사람은 침사의 아문(衙門)으로 들어가 가야금 연주를 들었다[15].

1624년 9월 18일 강홍중이 통신부사(副使)로 참가한 노정에서 임중군(任中軍)이라는 자가 부산 전별연 잔치를 베풀었다. 9월 19일에는 창원 부사(府使)가 주연(酒宴)을 베풀었다[16]. 1636년 9월 24일 부산의 전별연은 동래 부사가 주관하였고 밀양 부사도 함께 참석했다[17].

1682년 통신사행은 5월 26일 부산에 도착하여 6월 18일까지 머물다 출항했다. 5월 29일 오후 부산 수사가 마련한 통신사 연향이 있었다. “사신 이하는 각각 붉은 단령을 입고, 정사 이하는 모두 꽃을 꽂았다. 자리를 정한

뒤에 세 행차의 패장(牌將) 및 당상 이하가 각각 직위에 따라 동서로 나누어 앉았다. 음악을 울리고 음식을 내오는데 안주도 풍성하고 기생들도 나열하여 가무를 행하였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음악과 노랫소리는 하늘에 사무칠 듯했다. 저녁이 되어서 잔치가 끝났다[18].” 이날 부산 본부(本府)와 본영(本營)·밀양·경주·울산 등의 기생들이 와서 가무를 행했다. 6월 14일에도 부산 수사가 사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열어주는 전별연이 있었다[19].

1711년 6월 16일 부산 수사(水使)가 주관하는 사연(賜宴)이 있었다. 세 사신이 동벽(東壁)에 앉고 수사는 서벽(西壁)에 앉아 연향을 위한 의식을 갖추었다. 연향 음식은 중간에 네 개의 큰 상을 진설하고, 뒤에 각각 잔치 상을 놓았는데 차린 음식이 매우 풍성했다. 연향을 위해 이웃 고을 기악(伎樂)까지 초청되어 종일 합주를 했다[20].

1719년 5월 13일 통신사 제술관인 신유한(申維翰)이 부산에 도착하자 “좌수사(左水使) 신공명인(申公命仁)이 객사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세 사신이 후단령을 갖추어 입고 수사와 마주 앉고, 일행의 원역(員役) 및 군관(軍官)·서기(書記)가 차례로 좌석을 정하여 화상대찬(花床大饌)을 받았다. 경주·동래·밀양 고을 기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번갈아 춤을 추었다. 집이 떠나갈 듯한 웅장한 음악 소리에 많은 구경꾼이 성안을 가득 메웠다.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였다[21].”

1763년 통신사행에는 같은 기간에 참가한 정사 조엄(趙嚴), 제술관 남옥(南玉), 서기의 성대중(成大中)과 원중거(元重擧), 김인겸(金仁謙)이 각각 사행기록을 남겼다. 이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 통신사 연향 내용이 풍부하다. 1763년 9월 10일은 “날을 가려 연향을 거행하도록 조정에서 명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세 사신 및 일행의 원역들이 객사에 일제히 모였는데, 청사(廳舍)가 좁아서 임시로 넓은 자리를 만들고 기악(伎樂)을 크게 베풀었다. 사신과 좌수사는 주객의 자리에 갈라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차례대로 좌정하여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상을 받았다. 차(茶)로 술을 대신하여 9잔 7미(九盞七味)의 의례를 행하였다. 모두 머리에 채화(彩花) 한 가지씩 꽂고 배가 부르도록 상에 가득한 음식을

먹었다. 공적인 연회가 끝나자 수사가 사연(私宴)을 베풀었는데, 여러 풍악이 교대로 연주되고 군무(群舞)가 일제히 벌어졌다. 청사초롱이 벽마다 걸려 마치 대낮과 같고, 상 위에 벌여 놓은 꽃병이 완연한 봄 동산 같아 하나의 기이한 구경거리였다[22].” 다음날인 9월 11일에는 부산 청사의 당상(堂上)과 선상(船上)으로 연향이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 각 각의 배 위에서는 삼현육각의 악기 연주와 함께 가무가 연회되었다[23]. 1763년 9월 16일 오후에는 세 사신이 경주 부윤과 함께 영가대(永嘉臺)의 달이 뜬 뒤에 각각 진(鎭)의 배를 타고 나가 바다 가운데서 연향을 펼쳤다. 배 위에는 기생들의 악(樂)이 연행되었다. 각 각 배를 서로 연결시켜 노를 저으며 놀았다. 부산 첨사가 중류(中流)에서 햇불놀이를 했다. 10리 해변이 삼시간에 휘황찬란한 불의 성이 되어 바닷물을 환하게 비쳐 그 경치가 아주 기절할 정도로 장관이었다[24].

통신사가 일본의 임무를 마치고 대궐로 돌아가는 상행길에는 대개 연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764년 6월 29일 단 한 차례 대구에서 연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1758년에 영남 관찰사로 임명되었던 조엄이 통신사로 제수된 것을 기념하고자 경상 감영에서 기녀와 풍악을 주선하여 조엄 일행에게 연향을 베풀었기 때문이다[25].

조선통신사 국내 일정을 살펴본 결과 통신사 연향은 영남좌도에 집중되었다. 연향의 대부분은 한양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하행길에 나타났고, 단 한 차례 1764년 상행길에 대구의 연향이 있었다. 영남좌도 통신사 하행길에 연향이 주된 지역은 예천·안동·의성·영천·경주·동래·부산이다. 예천과 의성은 연향의 횡수가 많지 않았다. 안동은 영호루와 망호루, 진남루에서 연향이 이루어졌다. 영천에서는 주로 조양각이 연향 장소로 이용되었고, 마상계 공원이 자주 열렸다. 경주에서는 명승고적 탐방 등으로 심신의 휴식과 연향이 함께 제공되었다. 부산은 통신사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으로 부산의 전별연이 가장 성대하고 푸짐했다.

영남좌도 통신사 길을 따라 하행하는 일정은 숙박과 연향을 포함하여 약 한달 정도 소요되었다. 조선시대 부산에서 한양을 가는 길은 14일 정도 소요되는 ‘영남

대로(嶺南大路)⁴를 많이 이용했다. 통신사들이 한양을 출발하여 유곡까지의 길은 영남대로와 같지만, 영남에 이르면 안동, 경주 등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길은 조선시대 제2 직봉(直烽) 봉수(烽燧) 노선이기도 하다[26]. ‘통신사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은 대규모 인원에 따르는 지역 재정의 부담감이다. “구례(舊禮)에 충주, 안동, 경주, 부산 네 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후에 사신이 민폐를 없애기 위하여 단지 부산에서만 행하였다[27].”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습에 의해 규모가 작은 사연(私宴)은 지속되었다. 통신사 연향은 통신사들의 숙박과 연향을 감당할 수 있는 읍의 규모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역에서 지속되었다.

III.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

통신사 연향에는 악기 연주와 더불어 교방의 춤을 올리는 것을 의례로 간주했다. 통신사 연향에 올리는 교방춤은 영남좌도 교방의 기녀들이 담당했다. 교방이 없는 지역은 인근 고을이나 영남 일대의 교방에서 차출되었다. 영남좌도 중에서도 경주와 동래는 교방의 기녀와 악공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 지역은 통신사 길에 해당되는 지역임과 동시에 사신단의 경유지로 조선시대 대외관계에서 중요성을 띤 지역이었다. 영남좌도에 통신사 연향이 있었던 1607년부터 1763년 사이에 연행된 춤은 검무·황창무·처용·친도·무동·입춤·중춤이다.

검무(劍舞)는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에서 가장 많이 연행된 춤이다. 통신사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763년까지 영남의 검무는 지역의 특징을 지닌 칼춤으로 발달했다.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에서는 예천, 의성, 부산에서 검무가 연회되었다. 1711년 의성의 문소루(聞韶樓)에서 청송 기녀 2명이 검무를 추었다. “쌍검(雙劍)을 위로 던졌다가 한 손으로 받든 그 솜씨가 참으로 기예였다[28].”고 기록하였다. 청송에서 온 기녀가 춘 검무는 칼사위가 매우 역동적이고 기교가 많은 동작으로 이

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11년 7월 4일 부산에서도 검무를 추었다. 부산의 “과해정(跨海亭)에서 활쏘기를 본 후 기생들을 시켜 칼춤을 추게했다. 이어서 풍악이 계속되었다[29].” 부산의 배 위에서도 검무가 연회되었다. 통신사 부방(副房) 소속의 군관(軍官)들과 서기 김인겸이 배에 올랐고 기생들도 동참했다. 배 위에는 북을 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취수(吹手)가 함께 올라 춤을 위한 반주를 했다. 이때 조선달(趙先達)이라는 기생은 노래를 하고 덕심(德心)이 검무를 추었다[30]. 검무는 2인이 짝을 이루어 대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상(船上)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한 명이 추는 검무가 연출되었다. 1682년 5월 15일 예천에서 “삼사가 객사 동헌에 모여 마상재 오순백을 시켜 검무를 추게했다. 검무를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답을 친 듯이 많이 모였다[31].” 마상재 오순백의 검무는 기녀들의 검무보다 더 활달하고 무예적인 성격의 검무일 것이라 생각된다.

황창무(黃昌舞)는 통신사 서기로 참가한 김인겸과 원중거의 기록에 1763년 부산에서 연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통신사 연향에는 ‘황창무’가 ‘검무’와는 별개의 종목으로 연회되었다. 황창무는 신라시대 경주지역에서 유래한 춤으로 가면을 쓰고 추는 칼춤이다. 황창무는 조선 중기 영남지역 교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1763년 9월 2일 동래부 관아의 빈일현(賓逸軒)에 연향을 위해 삼사신(三使臣)과 일곱 고을의 수령들이 모였다. 기생들은 백여 명이 운집하였고,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서너 패 준비되었다. 연향의 내용 중 ‘대구 기생 옥진(玉珍) 형제(兄弟)가 황창무를 일등하네’라고 하였다. 가무에 대한 상으로 내려 준 것이 오백냥에 이르렀다[32]. 백여 명에 이르는 기생이 연향을 위해 모였지만, 특별히 황창무에 대한 칭찬과 상금을 준 것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음을 말해준다.

1763년 9월 10일 부산에서 수사(水使) 심인희(沈仁希)가 베푸는 연향에도 황창무가 연회되었다. 반주 음악은 경주와 동래의 악공들이 맡았다. 여러 읍의 명기(名妓)들을 공문을 통해 뽑아 춤을 담당하게 했다. 이날 검무는 밀양 기생이 추었고, 이와는 별도로 백련(白蓮)이라는 경주 기생이 황창무를 추었다. 황창무는 황창곡

4 주요 경유지는 동래-밀양-청도-대구-칠곡-구미-상주-문경-충주-안성-용인-양재이다.

(黃昌舞)이라는 악곡이 있어 이 곡에 맞추어 춤을 추었는데, 칼날이 번쩍번쩍 빛나며 신선함이 있는 춤이었다[33]. 1763년 9월 부산에서 연행된 황창무는 솔로춤과 2인 황창무 두 가지 양식이 함께 공연되었다. 솔로 형식의 황창무는 9월 10일 경주기생 백련이 추었고, 2인 황창무는 9월 2일 대구 기생 옥진 형제가 추었다. 솔로춤과 2인 황창무에 대한 구체적인 춤사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2인이 추는 황창무와 달리 솔로로 추는 춤은 칼사위에 있어 개인의 창의성과 기량이 더 돋보이는 춤일 것이다.

1763년 9월 10일의 연행에서 춤을 추기 위해 경주와 동래, 밀양 기생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대기 했다. 통신사 제술관인 남옥은 “음악을 동경(東京)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은 세 읍의 춤을 섞었으니 황창(黃昌)·처용(處容)·천도(天桃)등의 춤이다. 동경의 단장(壇場)은 대개 많은 음악들이 나온 곳이다[34].”고 기록했다. 동경은 경주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공식 행사에는 의례히 경주의 음악과 춤이 소개되었다. 이 연행에서 처용과 천도의 춤 명칭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춤의 내용이 없다.

처용은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추는 처용무를 뜻한다. 처용무는 신라 경주의 ‘처용설화’에 바탕을 둔 춤이다. 남옥은 처용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춤의 반주 음악을 경주에서 담당했다고 했다. 이 연행에 참가한 기녀 중에 경주와 밀양 기생이 있으므로 처용무는 경주 교방의 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 교방의 처용무는 1767년 경주 객사에서 연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녀 5인이 오방색 의상을 입고 춘다. 처용의 기괴한 형상을 한 탈을 쓰고 각자 차례로 등장하여 각각의 방위를 돌면서 춤을 추다가 차례로 퇴장한다[35].”는 내용이다.

천도(天桃)는 ‘선계(仙界)에 있는 복숭아’를 뜻한다. 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선도(仙桃)’와 ‘반도(蟠桃)’가 있다. 9월 10일 통신사연에서 남옥은 춤의 이름만 나열하였으나, 김인겸은 연행의 규모에 대해 “잔치의 성하기와 풍악의 장(壯)하기는 서왕모(西王母)의 반도연(蟠桃宴)이 이에서 더하겠나? [36]”라고 언급하였다. 서왕모는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여신(女神)으로 중

국 문학 『목천자전(穆天子傳)』에 의하면 복숭아 7개 중에서 4개를 한무제(漢武帝)에게 주고 자신이 3개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37]. 서왕모가 복숭아를 왕에게 주는 것은 장수와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복숭아를 헌상하는 내용의 ‘헌선도(獻仙桃)’를 추었다.



그림 4. 헌반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는 진주 교방에서 연행되었던 헌반도(獻蟠桃)이다. 그림에서 머리에 연화관(蓮花冠)을 쓴 4인의 선녀(仙女)는 복숭아가 담긴 도반(桃盤)을 동선(童仙)에게서 받아들고 춤을 추다가 탁자 위에 올린다. 선녀가 도반을 높이 들어 바치면서 ‘원하옵건대 만수무강(萬壽無疆) 하옵소서’[38]라는 내용의 가사를 부른다. 통신사 연행에서 복숭아를 바치는 대상은 신분이 높은 삼사와 통신사들을 위한 것이다. 부산에서 춘 천도는 위험한 바닷길을 떠나는 통신사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의미로 올린 춤일 것이다.

1763년 9월 10일의 연행 중에 춤의 내용만 소개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춤이 있다. 어린 기생 2명이 춘 춤으로, “한명은 머리에 관을 쓰고 하나는 용으로 만든 샅갓을 쓰고 가사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춤의 동작은 팔뚝을 구부리고 턱을 피고 거드랑이를 누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었다. 가사의 내용은 근심스러운 뜻이 있었고 관람자가 처음 보는 생소한 춤이었다고”했다[39]. 이 춤의 내용과 명칭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경주 교방에서 춘 ‘무동(舞童)’과 춤의 복식이 유사한 점이 있다. 경주의 무동은 여자 4인이 춘 춤으로 2명은 화립(花

笠)을 쓰고 2명은 채관(彩冠)을 쓰고 서로 짝을 지어 대무하는 춤이다[40]. 성천 교방의 무동춤은 “구슬 달린 갓을 쓴 2인과 붉은 비단 파립(裴笠)을 쓴 2인”이 춤을 춘다[41]. 무동춤의 공통점은 모두 머리에 갓이나 관을 쓰고 짝을 이루어서 춤을 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동은 춤의 명칭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연향에서 8세에서 15세 이하의 춤추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통신사에 참가한 소동(小童)은 일본 현지 연향에서 춤을 담당한 남자이다. 부산에서 동기(童妓) 2인이 가사를 노래하면서 춘 춤과 경주의 무동과의 관계를 같은 춤으로 단정지를 수는 없다. 그러나 통신사연을 위해 경주에서 차출된 기녀들이라면 무동춤을 추었을 가능성은 크다.

통신사 연향 중에 부채를 들고 서서 춘 ‘입춤’ 형식의 춤이 있다. 1763년 9월 11일 부산에 정박해 있는 복선(卜船)에서 연향이 시작되었다. 전날과 같은 자리 순서대로 앉아 떡과 고기, 국, 홍시가 음식상에 오르고 기악(妓樂)이 펼쳐졌다. 밤에는 객사의 방안에서 연회가 시작되었다. 동경(東京)의 13살 일취(日翠)와 열두 살 소아(小娥)라는 기생이 기악(妓樂)을 베풀었다. 자리에 있던 사립과 원중거가 붉은 색과 누런색 부채 두 개에 절구(絶句)를 써서 주고 즉석에서 춤을 청하였다. 두 기생은 부채를 펼치고 춤을 추었다[42]. 같은 날 배 위에서 선장과 사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채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말하기를 “각자 이 부채를 부쳐서 순풍을 만듭시다[43]”라며 사기를 복돋았다. 통신사들의 순항과 순풍을 기원하는 의미로 부채를 많이 제작하여 나누어 주고, 기생들에게는 즉석에서 춤을 추게 하였다. 기생들에게 나누어준 부채는 손에 가볍게 쥘 수 있는 부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춤의 명칭은 이 시기에 고정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대에 정착된 춤의 명칭으로 가장 근접한 것이 ‘입춤’이다. 부산 객사에서 기생 두 명이 즉석에서 받은 부채를 들고 춘 춤을 ‘부채 입춤’의 양식을 지닌 춤으로 생각된다. 부채를 손에 쥐어 준 의미는 배길에 순항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순풍과 무사안일을 바라는 의미의 창의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었을 것이다.

입춤은 즉흥무, 허튼춤 이라고도 하여 춤사위의 전후

순서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는 춤이다. 입춤은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분위기만 조성되면 특별한 준비 없이도 즉흥적으로 출수 있다[44]. 1866년 홍순학(洪淳學)이 북경에 다녀온 사행기록인 <연행가>에 ‘입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선천부의 의검정에 배편 연향 중에 “의검정 너른대청 대연을 배설하고 여러 기생 불러다가 춤추는 구경하세 맵시있는 입춤이요[45]”라는 구절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선천부에는 ‘입춤’이 공연목록 속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춤’이라는 명칭으로 부산에서 춤이 연행되었다. 1763년 9월 21일은 부산진(釜山鎭)에서 의성 기생인 윤매와 봉매가 중춤을 추었다[46]. 의성 기생이 춘 중춤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중춤’이라는 명칭에서 불교와 관련된 의상이나 춤사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1866년 선천부 연향 기록에 ‘우습도다 승무라’라고 하여 승무가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천부에서 춘 승무를 보고 우습다고 표현한 것은 위트와 익살이 있는 내용의 춤이라 생각된다.

1872년 진주 교방에서 춘 ‘승무(僧舞)’는 5인이 등장하여 무언극으로 추는 춤이다. 극 형식을 지닌 내용의 이 춤은 근대를 지나면서 ‘한량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1763년 부산에서 춘 중춤을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승무’라고 불렀다. 김인겸이 승무라 명명되던 춤을 한글 가사로 옮기면서 ‘중춤’이라 한 것 같다. 부산의 중춤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선천부와 진주 교방에서 춘 ‘승무’ 보다 앞선 시기에 추어졌다는 점에서 영남좌도 교방춤의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검무는 의성의 문소루와 부산의 과해정, 선상(船上)에서도 연출되는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되었다. 황창무·처용·천도는 의례를 갖춘 사연(賜宴)에서 춘 춤이다. 황창무는 9월 2일과 10일에 각각 대구와 경주 기생이 추었다. 그 중에서도 대구 기생의 황창무 실력이 으뜸이었다. 처용과 천도는 춤의 명칭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쫓고 상서로운 기운을 몰고 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앞으로 긴 여정이 될 일본 사신행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의미로 추었을 것이다. 천도는 복숭아를 높은 분께 바

치는 의례적인 춤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들의 건강과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연향에서 춤의 명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사료의 내용과 가장 근접하게 명명한 춤이 ‘무동’과 ‘입춤’이다. 1763년 9월 10일 부산에서 춘 무동은 머리에 관을 쓰거나, 용으로 만든 샷갓을 썼다. 이러한 복식은 경주 교방의 무동춤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같은 해 부산에서 춘 입춤은 순풍을 만들자는 의미로 나누어준 부채를 들고 즉석에서 기생 두 명이 춘 춤이다. 이상의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의 교방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의 교방춤

춤	시기	장소	춤의 내용
검무	1711년 5월 26일	의성 문소루	청송 기녀 2명의 쌍검무
	1711년 7월 4일	부산 과해정	활쏘기 후의 기녀들의 칼춤
	1763년 8월 29일	부산 선상	턱심의 검무
	1763년 9월 9일	부산 물운대	밀양·경주·김해의 기악과 검무
	1763년 9월10일	부산 청사	밀양 기생의 검무
황창무	1763년 9월 2일	동래부 빈일현	대구 기생 옥진 형제의 황창무
	1763년 9월10일	부산 청사	경주 기생 백련의 황창무
처용	1763년 9월10일	부산 청사	경주 교방의 처용
천도	1763년 9월10일	부산 청사	통신사의 무사향해를 기원한 춤
무동	1763년 9월10일	부산 청사	머리에 관과 샷갓을 쓴 2인의 대무. 가사를 부르면서 팔뚝을 구부리고 턱을 피고 거드랑이를 누르고 박수를 치며 춘 춤
입춤	1763년 9월11일	부산 객사의 방안	동경(東京)의 일취와 소아의 부채를 든 입춤
중춤	1763년 9월21일	부산진	의성 기생 운매와 봉매의 중춤

위의 표에서 검무를 제외한 황창무·처용·천도·무동·입춤·중춤은 모두 1763년 통신사행에서 부산에 머무는 동안 춘 춤이다. 통신사 연향 중에 교방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에 부산의 연향에 집중된 것 같다. 통신사 기록에는 ‘풍악을 울리고 가무를 앞세웠다’, ‘기악(伎樂)을 베풀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연향의

총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연향의 현장에서 춤의 내용을 모르거나 생소한 내용을 ‘풍악’이나 ‘기악’이라는 함축된 용어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교방춤을 춘 기생들은 대구·밀양·경주·동래·의성 등으로 영남의 각지에서 소집되었다. 즉 영남 각 지역에서 통신사 연향을 위해 특별히 선정된 춤이라 여겨진다.

IV. 영남좌도 통신사 교방춤에 나타난 문화예술적 특징

통신사 연향에서 기악(伎樂)이 제공된 것은 기녀가 연회하는 가무의 총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연향에서 춤의 구체적인 명칭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 실제 기록보다 더 많은 교방춤이 연회되었을 가능성은 많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통신사 연향의 교방춤에 나타난 문화예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 연향을 통해 교방춤은 예술성을 갖춘 공연형식으로 발전되었다. 통신사 연향의 공연은 몇 백명에 이르는 관객을 대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의 문화예술 공연 또한 관객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의 연출이 달라진다. 통신사 연향을 위한 공간은 영천의 조양각, 의성의 문소루, 부산의 과해정, 부산의 빈일현 청사 등이 무대로 채택되었다. 부산 청사에는 공간이 좁을 경우 계단을 덧대어 가설무대를 설치했다. 연향의 종목 중에서 춤은 넓은 공간과 동선을 필요로 한다. 누각의 경우는 4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연출로 예술성이 극대화 되었다.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춤은 의례의 일부분에 속했다. 나라에서 열어주는 사연은 날짜를 미리 정하여 연향의 형식과 내용을 준비했다. 연향의례는 행사를 시작하기 전 머리에 꽃을 꽂고, 신분에 따라 좌석의 배치가 달라졌다. 이는 궁중 연향의 참석자들에게 권화(勸化)로 꽃을 드리는 절차와도 같다. 1763년 부산의 연향에서 9차례의 술을 나누고 7차례의 각기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다. 음악이 쉬지 않고 연주되는 사이에 교방춤은 절차

에 따라 진행되었다. 춤과 노래는 각 절차의 사이에 진행되는 의례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연향의 양식은 오늘날의 공연형식에 비해 종합예술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춤의 다양한 양식을 구성했다. 지역 관아의 행사에서 추는 교방춤과 달리 통신사 연향은 장소에 따라 공연의 양식과 연출이 변화되었다. 의성의 문소루에서 춘 검무는 2인이 대무의 구도로 춘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과해정에서 활쏘기가 끝난 후 춘 검무는 여러 명이 추는 군무의 형태이다. 이에 반해 부산의 배 위에서 추는 덕심의 검무는 솔로로 추는 형태를 지닌다. 황창무도 대구 기생이 춘 것은 2인무였지만, 경주 기생이 춘 황창무는 1인무 형태였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교방계열의 검무는 4인 이상이 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711년과 1763년 검무와 황창무가 연행되었던 공연장소는 누각과 대청마루이다. 통신사 연향에는 규모가 큰 군무보다 실력이 우수하고 집중도가 좋은 1인, 2인의 춤 형태가 선호되었다. 춤의 구도와 동작에서도 4인, 8인이 추는 것 과 1인 2인이 추었을 때는 갈사위 위주의 동작이 더 많이 연출되었으리라 본다.

무동춤은 한명은 머리에 관을 쓰고 다른 한 명은 삿갓으로 각기 다른 머리 장식을 한 것이 독특하다. 춤 동작에서 팔뚝을 구부리고 턱을 피는 춤사위는 관람자에게도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교방춤의 동작이 연출되었다. 입춤은 2인이 붉은색과 누런색의 부채를 들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춤을 춘 것이다. 보통 2인으로 추는 대무는 복식과 소도구를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동춤과 입춤에서 의상과 소도구에 변화를 주었다.

셋째,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춤은 예술치유적 역할을 하였다.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행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통신사 원역으로 제수 받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험난한 바닷길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은 조정에도 보고되었다. 조정에서 통신사를 보내 왜적의 정세를 탐지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왜적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고 바닷길이 어렵고 위험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눈치만 보면서 가기를 회피하

였다[47].”고 했다. 통신사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바닷길을 선택 나서기를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를 접대하는 예우와 비용은 막대하게 소모되었다. 따라서 통신사 접대 비용을 경감 하자는 상소가 올라갔다. 이에 대해 임금은 “바다를 건너는 사행은 실로 사생(死生)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치스럽게 접대하는 예가 있는 것이다[48].”라고 하였다. 통신사 연향의 외적인 형식 이면에는 생사를 걸어야 하는 불안함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의 역할이 컸다. 따라서 연향에서 교방춤을 감상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내적인 치유기능을 했다.

통신사 연향에서 통신사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춤이 있는데, ‘천도’와 ‘입춤’이다. 복숭아를 바치는 것은 만수무강에 대한 기원의 의미이다. 통신사행에서 항해에 대한 순풍을 기원하는 행위들은 자주 발견된다. 통신사의 삼사(三使)가 사청(射廳)에 모여서 순풍이 불기를 기원하는 기풍제(祈風祭)를 지낼 제물을 준비[49]하기도 했다. 항해에 대한 순풍의 염원은 기생에게 부채를 펼쳐서 춤을 추게 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부채를 들고 아름답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항해의 안전과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통신사들에게 교방춤은 임무의 중압감을 완화시키는 예술치유적인 기능을 하였다.

V. 결론

본문에서 연구자는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영남좌도의 ‘통신사 길’은 조선시대 5거의 봉수(烽燧) 노선중 제2거 노선에 속하는 영남지역 직봉 경로와 겹하고 있다. 영남의 봉수지역은 동래, 양산, 언양, 경주, 연천, 의성, 안동, 봉화, 영주를 거쳐 서울 목면산 봉수로 전달된다[50]. 이 길은 영남지역을 하행하는 통신사들이 숙박과 연향이 있었던 예천 · 안동 · 의성 · 영천 · 경주 · 동래 · 부산의 경로와도 중첩되는 곳이다. 조선시대 영남지역에 설치된 봉수는 왜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 목적과 신속한 통신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길에 속한

안동, 영천, 경주, 동래는 통신사행원들의 지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큰 고을의 규모에 해당했다. 안동과 경주, 동래는 사신단과 관리들을 위해 필요한 가무를 제공하는 교방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이다. 결국 통신사 길의 형성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최적화 된 통신수단과 문화욕구의 충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길로 선택한 것이다.

통신사 기록에서 집중적인 연향은 1607년에서 1763년까지 많이 나타났다. 통신사 연향은 하행길인 영남좌도에 집중되었고, 이때 춘 교방춤은 검무·황창무·처용·천도·무동·입춤·중춤이다.

통신사 연향을 통해 영남좌도의 교방춤은 공연형식을 갖춘 춤으로 발전되었다. 통신사 연향을 위해 영남좌도의 교방춤은 최고의 예술성을 갖춘 춤으로 발전되었다. 연향에서 검무는 청송, 부산, 동래, 밀양 지역의 춤을 선보였다. 황창무는 대구와 경주 기생이 추었다. 처용과 천도는 경주와 동래, 밀양의 춤을 선보였다. 입춤은 경주 출신의 기생이 추었다. 중춤은 의성기생 2인의 춤이다. 연향이 있었던 지역은 고정되었지만 춤은 청송·부산·동래·밀양·경주·의성의 교방 기관에서 전승하고 있는 춤을 공연했다.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춤은 공연장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식과 구도를 형성했다. 검무와 황창무는 1인 또는 2인무가 선호되었다. 무동춤은 복식과 춤 동작에 있어 독특하고 창의적인 요소가 많았다. 성대하고 화려한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춤은 감상자의 심적 안정과 치유예술적인 기능을 했다. 교방춤의 상징적인 의미에도 통신사행의 안전과 항해의 순풍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통신사행은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띠고 다녀온 경우로 통신사행에 대한 기록물도 공식적인 보고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공무와 일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 이외에 연향의 사적인 감흥 기록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통신사 연향 관련 연구에서는 ‘풍악을 울렸다’라는 함축적인 내용에 대해 춤이 연행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은 것이 많다. 그러나 ‘풍악(風樂)’ 또는 ‘기악(伎樂)’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의 가무악을 행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기악이란 기녀들이 연행했던 춤과

노래를 말한다. 1763년 통신사 서기로 참가했던 김인겸의 기록 중에 “사신(使臣)네와 상중관(上中官)은 어제 처럼 벌어 앉아 삼현(三絃)치고 가무(歌舞)하며[51]”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연향에서 삼현육각의 악기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는 내용이다. 1719년 5월 13일의 부산 연향에도 ‘경주·동래·밀양 고을 기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번갈아 춤을 추었다.’고만 기록되었을 뿐 교방춤의 명칭은 없다. 따라서 춤의 명칭만 제시되지 않았을 뿐 기록자가 춤의 내용과 명칭에 대해 자세히 몰랐을 경우가 많다.

이 연구를 통해 영남좌도에서 행해진 통신사 연향에서 ‘기악’ 또는 ‘풍악’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교방의 기녀들이 춘 교방춤임을 간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러한 점에서 영남좌도의 통신사 교방춤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강홍중, 동사록, 1624.9.2.
- [2] 김지남, 동사일록, 1682.5.15.
- [3] 강홍중, 동사록, 1624.9.3~5.
- [4] 김세림, 해사록, 1636.8.26.
- [5] 김지남, 동사일록, 1682.5.16.
- [6] 임수간, 동사일기, 1711.5.25~26.
- [7] 경섭, 해사록, 1607.2.1~2.
- [8] 강홍중, 동사록, 1624.9.9.
- [9] 김세림, 해사록, 1636.8.30.
- [10] 김지남, 동사일록, 1682.5.20.
- [11] 임수간, 동사일기, 1711.5.29.
- [12] 조엄, 해사일기, 1763.8.16.
- [13] 강홍중, 동사록, 1624.9.10~13.
- [14] 임수간, 동사일기, 1711.6.1.
- [15] 경섭, 해사록, 1607.2.8~29.
- [16] 강홍중, 동사록, 1624.9.18~19.
- [17] 김세림, 해사록, 1636.9.24.
- [18] 김지남, 동사일록, 1682.5.29.
- [19] 홍우재, 동사록, 1682.5.29, 1682.6.11, 1682.6.14.

[20] 임수간, *동사일기*, 1711.6.16.
 [21] 신유한, *해유록*, 1719.5.13.
 [22] 조엄, *해사일기*, 1763.9.10.
 [23] 조엄, *해사일기*, 1763.9.11.
 [24] 조엄, *해사일기*, 1763.9.16.
 [25] 조엄, *해사일기*, 1764.6.29.
 [26] 정영문,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의 공연양상 고찰,” *漢民族語文學*, 제57집, pp.74-75, 2010.
 [27] 김건서, “우리나라에서 베푸는 연향,” *증정교린지*, 제5권, 1802.
 [28] 임수간, *동사일기*, 1711.5.26.
 [29] 임수간, *동사일기*, 1711.7.4.
 [30] 김인겸 저, 최강현 역, *일동장유가*, 보고서, p.69, 2007.
 [31] 김지남, *동사일록*, 1682.5.15.
 [32] 김인겸 저, 최강현 역, *일동장유가*, 보고서, p.71, 2007.
 [33] 원중거 저, 김경숙 역, *승사록(乘槎錄):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p.53, 2006.
 [34] 남옥 저,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p.214, 2006.
 [35] 박중, “유록, 신라십무,” *당주집*, 권15, 1931.
 [36] 김인겸 저, 최강현 역, *일동장유가*, 보고서, p.92, 2007.
 [37] 崔眞娥, “조선시기 唐樂呈才에 반영된 西王母의 문화적 의미-獻仙桃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1집, p.77, 2013.
 [38] 정현석 편저, 성무경 역주, *교방가요*, 보고서, p.182, 2002.
 [39] 원중거 저, 김경숙 역, *승사록(乘槎錄):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p.53, 2006.
 [40] 박중, “유록, 신라십무,” *당주집*, 권15, 1931.
 [41] 간행자미상, *성천부중기(城川府重記)*, *교방풍물(敎坊風物)*, 국립중앙도서관, 1877.
 [42] 원중거 저, 김경숙 역, *승사록(乘槎錄):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p.54, 2006.
 [43] 남옥 저,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p.215, 2006.

[44] 국립문화재연구소, *입춤 한량무* 김무, 국립문화재연구소, p.22, 1996.
 [45] 정렬모, *가사선집*, 조선 문학예술 총동맹 출판사, p.164, 1964.
 [46] 김인겸 저, 최강현 역, *일동장유가*, 보고서, p.124, 2007.
 [47] 김성일, *학봉집 부록 제3권, 언행록(言行錄)*, 1649.
 [48] *숙종실록 44년*, 1718(무술).4.3.
 [49] *개미동사일기*, 1643.11.14.
 [50] 이철영, 남상옥, “朝鮮時代 慶尙道地域 烽燧 硏究,”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2권, 제4호, p.157, 2010.

저 자 소 개

양 지 선(Ji-Seon Yang)

정희원



- 2011년 2월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무용학석사)
- 2017년 2월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무용학박사)

<관심분야> : 교방문화, 무형문화유산, 무용교육

강 인 숙(In-sook Kang)

정희원



- 2003년 2월 : 건국대학교 체육학과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민속학, 무용인류학, 무용사